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내달 10~11일 개최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김치명인 초청

임실군이 겨울철 대표 축제이자, 주부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3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의 태세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임실군이 '제3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26일 군에 따르면 제3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성수면 소재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에서 열린다.

26일에는 임실군청 농업교육장에서 김장페스티벌에 절임배추를 납품할 농가를 대상으로 김치명인(유정임)을 초청, 배추절임 매뉴얼 교육 및 위생 관련 교육도 병행, 진행했다.

김장 김치는 배추를 절이는 방법에 따라 김치맛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교육인만큼 참석 농가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지하게 이뤄졌다.

남원시,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성과 발표

남원시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청년문화기획자아카데미' 공모사업을 시행해 왔다.



남원시는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와 함께 '청년문화기획자아카데미' 공모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문조사, 멘토링 지원, 팀별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 관광, 먹거리 등을 지역 청년들과 연계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일지리를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는 청년들이 플라마켓에 참여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이번 청년문화 기획자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청년들 스스로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으며, 향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진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순창군은 클린순창 만들기 및 행복몰세 입암사업 등 읍면 환경 개선 사업에 앞장서 왔다.

순창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24개 사업 43억원 확정

순창군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해 주민편의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에 나섰다.

에 42억6,1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정된 24개 사업은 백야, 백산 등 도시가스 공급관로 매설공사, 순창군 가로등 절전형등원 교체사업 농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각 읍·면 용배수로 정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 농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 및 농업과 밀접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홍래 부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시행이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참여 제안건수가 배로 증가하고 제안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제안한 만큼 심의 논의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역사·문화 재확인

남원시 공직자들, 가야문화 찾기 현장 교육

남원시 공직자들이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남원 가야의 발자취를 더듬는 현장교육을 갖고 소중한 우리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 3~4월 3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을 비롯한 4개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추가 선정한다.

운봉읍 장교리 말무덤, 유곡리·두라리 고분군, 율산리 고분군, 백두대간 치재 봉수왕국 전복가야탑을 방문해 남원 가야인들의 생활 모습과 규모 등을 뒤돌아봤다.

남원시 관계자는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남원 운봉가야는 1500여년 동안 잊혀진 왕국이었다"며, "운봉 가야고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통해 남원의 역사가 되 살아 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티벳 고원으로 불리는 운봉고원에는 고분군, 제철유적, 산성, 봉수 200개소가 넘는 남원가야의 유적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은 지난 3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되고 이어 5월에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

순창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 시범설치

순창군이 도로변이나 골짜기 등 순창읍 5곳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장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한다.



군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야생고양이나 쥐 등이 훼손해 악취 및 주변환경 불량으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한다는 민원이 높아져 수거함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는 것.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의 훼손예방, 미화원들의 작업부담, 주민들의 반응 등 효과를 분석해 설치구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그 동안 순창군은 클린순창 만들기 및 행복몰세 입암사업 등 읍면 환경 개선 사업에 앞장서 왔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관청내 사무용품 함께쓰기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일반쓰레기 반입량 감소와 음식물쓰레기를 지난해 70여톤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이정선 자원순환계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입으로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선진화된 의식으로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지역 매아리

남원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남원시는 시민생활 및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남원시 규제개혁담당을 중심으로 각 인·허가 담당자로 이루어진 규제개혁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며, 기업운영, 도시계획, 농업, 관광 등 민생불편과 경제활성화의 큰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기업 및 단체 등을 방문해 규제혁신 과제와 직접 발굴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해여 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예고신고서 서한문 발송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꾸준한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신대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과 2018년 수시분 공무재산 관리계획안 및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24일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군정질문에서 지적되거나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 밖의 중요 안건 심사 등을 한해 마무리할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삶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